

안녕하십니까.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새해를 맞아 오카야마와 동경의 연두 행사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카야마 경제동우회의 신춘회에서는 오카야마 경제의 전망이 밝다고 간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은행의 오카야마지점장에 의하면 최근 오카야마의 경기현황 판단 지수는 22년 만의 높은 수준이라고 함)

또한, 동경 시사통신사의 신년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비 세율 인상 후의 경기감속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 등의 신춘행사에서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여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위메노믹스(※)』를 진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인구감소·저출산·노령화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경제발전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카야마시에서도 육아 환경의 향상과 유연한 근무형태의 도입 등 여성의 힘이 극대화되는 지역 사회 만들기에 힘쓰는 한편 시청 내에서의 여성 등용 등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저는 여러 장소에서,

「올해 오카야마시는 가을 ESD유네스코 세계회의의 개최나 이온 몰 오카야마 진출을 계기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활기를 단순한 활기로 끝내선 안 된다.

ESD유네스코 세계회의에 있어서는 지역 전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향한 새로운 ESD추진모델(오카야마 모델)을 만들어, 행사 후에도 국내외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

이온에 있어서는 연간 2,000만 명 정도라는 이온 이용자들에게 중심 시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열의가 불가피하므로, 시민여러분의 새로운 움직임에 기대하고 있다.」

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올해 일 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면서 매력과 활력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도시 만들기를 진행해, 오카야마가 크게 발전하는 좋은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 위메노믹스

WOMEN(여성)과 ECONOMICS(경제)를 합친 언어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진보할수록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견문. 작년 9월의 국제연합총회의 일반토론회에서 아베 총리가 제창.